

## 우럭도 잡고, 화합도 다지고~



강서북부지회(지회장 양승수)는 지난 8월 7일 지회 사무실에서 회원 20여명과 중앙회 박기준 회장, 김수환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화합과 친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날 지회회원 네 명과 김수환 부회장이 충남서산 앞바다로 바다낚시를 나가 4~50cm 짜리 우럭을 20여마리를 낚아 자연산 우럭 회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다.

김수환 부회장은 월척이 넘는 자연산 우럭을 20여 마리나 낚는 일도 쉽지 않지만 낚시 대 끝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손맛에 전율마저 느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양승수 지회장은 “뜻밖에 중앙회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자리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친목과 단합의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가를 이용해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하겠다”고 인사했다.

박기준회장은 “자연산 우럭 회를 실컷 먹는 것도 좋지만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더욱 기쁘다며 조직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무엇보다 인간적인 유대와 친목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